

21조 체코원전 수주 총력전 정재훈 “동유럽 교두보 확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체코 방문 등 수주 구슬땀
산업부와 UAE 운영 점검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년 초 입찰이 진행되는 체코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시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지키기에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재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등과 바라카 원전 계약 점검차 UAE를 방문 중이다. 최근 UAE 바라카 원전 운영사인 나와(Nawah)가 한수원의 최대 경쟁사인 프랑스 EDF와 장기서비스계약(LTSA)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수원의 독점 운영권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정 사장의 행보가 업계의 주목을 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약 21조원에 달하는 체코의 원자력 발전 사업권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체코는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원전 건설을 계획 중이다. 두코바니와 테일렌에 각각 1000MW급 원전 1~2기를 구축할 예정이며 건설은 오는 2025년부터 시작한다. 체코는 올해 말까지 신규 원전 프로젝트 재원 조달 모델을 선정하고 내년 초 국제 입찰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사업을 위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정재훈 사장은 이번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지난 8월, 9월, 11월 잇따라 체코를 방문하며 강한 수주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가운데)이 체코 폴젠에 위치한 터빈 제작사인 스코다파워와 신규원전사업 개발 및 R&D분야 협력 MOU를 체결한 후 스코다파워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은 “체코는 한수원이 동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여기는 시장”이라며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지난 40여 년간 축적한 원전 건설 경험과 긴밀하게 구축된 공급망 등 한수원이 갖고 있는 역량을 결집해 체코 원전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체코 원전 수주에 적극적으로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에 들르면서 체코 정부와 원전 협력에 우호적인 뜻을 주고 받으며 수주 성공 가능성을 더 높였다는 분석이다.

정지권에서도 체코 원전 수주에 적극적으로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에 들르면서 체코 정부와 원전 협력에 우호적인 뜻을 주고 받으며 수주 성공 가능성을 더 높였다는 분석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달에 체코의 원전 사업모델이 확정되고 내년 상반기에 입찰 안내서가 발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사장은 현재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지원실장, 임현승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김범년 한전KPS 사장 등과 함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머물고 있다. 원자력공사 경영진들과 만나 바라카 원전 장기정비계약(LTMA)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수원이 바라카 원전의 장기 운영권을 독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바라카 원전 운영사가 프랑스 EDF와 장기서비스계약(LTSA)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수원의 독점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냐는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재훈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EDF와 UAE간 장기서비스계약(LTSA)은 예상대로 원전 직접 운영과는 관련이 없는 기술적 건설팀 분야의 소규모(5년·총 1000만불) 자문계약”이라며 최근 불거진 원전 독점 운영권 논란을 일축했다.

바라카 원전 운영과 관련된 계약은 크게 운영지원계약(OSSA)과 장기정비계약(LTMA)으로 나뉜다. 한수원은 Nawah와 10년 단위의 운영지원계약(OSSA)만 체결한 상태며 장기정비계약(LTMA)은 UAE 측이 내년 상반기 국제 경쟁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수원이 장기정비계약까지 따내면 완전하게 독점 운영권을 갖게 된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에몬스가구가 제안하는 ‘2019 가구 트렌드’는? ‘친환경’에 ICT 접목

에몬스 내년 창립 40주년
자연친화·고품질 정조준
60여 가지 신제품 선보여
“내년 매출 10% 성장 목표”

내년 상반기 가구 트렌드는 ‘친환경’이 될 전망이다.

올해 일부회사의 ‘라돈침대’ 공포로 가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가구 선택이 더욱 간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똑똑한 가구’도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에몬스는 5일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본사에서 가구대리점주 등을 대상으로 ‘2019 봄 시즌 가구 트렌드 및 신제품 품평회’를 갖고 60여 개 제품을 새로 선보였다.

내년 창립 40주년을 맞는 에몬스는 1994년부터 신상품 품평회를 매년 열고 있다. 2000년부터는 사세가 확장됨에 따라 1년에 두 차례씩 품평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경수 에몬스 회장은 “에몬스는 국내 직접제조를 기반으로 명품 품질, 서비스, 디자인 정책을 유지해왔다”면서 “친환경 소재를 바탕으로 소비자 가치를 높이는 디자인과 정교한 기술력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편안한 가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에몬스는 유해물질 없이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한 가구로 내년 소비자들의 마음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마케팅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실제 이날 에몬스가 선보인 친환경 매트리스 ‘노블앙’은 천연라텍스, 천연 양모, 모달, 텐셀 등 자연친화적 소재를 사용해 위생적이고 건강한 수면 공간을 제공한다. 에몬스는 앞서 공인시험기관



에몬스 김경수 회장이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본사 쇼룸에서 대리점주 등에게 신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에몬스

을 통해 기준에 판매한 매트리스 전 제품에 대한 안전성도 확인받은 바 있다.

또 사계절이 있는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매트리스 ‘컴퍼릭스S2’는 2레이어 커버를 적용해 겨울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에몬스 관계자는 “라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를 없애기 위해 위해성이 낮은 천연 소재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인증 절차도 다 거쳤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몬스에 따르면 올해 자사의 매트리스 판매량은 전년보다 23% 가량 늘었다.

에몬스가 이날 첫 선을 보인 ‘아르페’, ‘파르테논S’, ‘모디스E’, ‘몬테스’, ‘헬렌’ 식탁에 세라믹을 사용한 것도 유해물질 없이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다.

김 회장은 “라돈포비아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올해 더욱 커지면서 안전한 가구를 찾게 되는 심리가 많아졌다”면서 “친환경 가구를 국내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데 전념한 것이 소비자들에게 많은 믿음을 줬고, 이때문에 어려운 시기에서도 에몬스가 올해 주

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해 18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에몬스는 올해 ‘2000억 매출’을 돌파했다. 내년엔 2200억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몬스는 ICT 기술을 접목해 맞춤형 수면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모션 매트리스’와 전동 리클라이너 소파 ‘릴렉시온’도 선보였다.

이모션 매트리스는 수면 상태를 모니터링해 사용자에게 적합한 최적의 수면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제품은 공인된 인증기관을 통해 내구성 반복테스트, 하중 롤러 테스트를 비롯해 라돈 테스트, 전기 인증까지 끝냈다.

특히 ‘웰 슬립센서’를 이용해 잠을 자는 동안 호흡, 심박, 뒤척임, 무호흡, 코골이 등 5가지 건강 측면을 측정해 깊은 잠, 얇은 잠, 깨어남 등 수면상태를 일, 주, 월, 단위로 데이터화한다. 이를 통해 분석한 데이터는 모션을 작동시켜 최상의 수면 상태를 유지해준다.

릴렉시온 소파는 휴대폰 앱을 통해 원하는 모션을 작동시킬 수 있으며, 메모리기능도 갖추고 있어 매년 모션을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었다.

/인천=김승호 기자·배한민 수습기자bada@

aT 식품산업 취준생 역량강화 나서

‘청년 취업역량강화 워크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청년일자리 창출에 발맞춰 청년의 농식품 분야 일자리 네트워크 강화 및 취업지원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2018 식품산업 청년 취업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식품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170여명의 전국 식품분야 전공 대학생 및 취준생 등이



aT '2018 식품산업 청년 취업역량강화 워크숍'.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해태제과, 아워홈, 동원 F&B, 샘표식품 등 국내 대표 식품기업 인사담당자의 채용설명회와 토크콘서트를 통한 최신 채용트렌드 공유,

전문 컨설턴트의 면접·자소서 코칭, 인적성·NCS 직업기초능력 테스트 등 식품기업 입사에 필수적인 교육들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김현승 학생은 “식품기업 취업을 준비하며 평소 관심있었던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직접 만나 소통하며, 최신 채용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밝혔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식품산업 청년 취업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청년에게는 식품기업 취업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식품기업에는 우수인력을 육성하여 매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 발전’ 국제 워크숍 진행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달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타임스퀘어에서 ‘포용적 성

장을 위한 일자리사업과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일자리 관련 국내외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해 주요 국가들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지역고용정책 사례, 온

-오프라인 고용서비스 현황 및 성과 등을 공유하고 토론한다.

해외 전문가 9명은 각국의 일자리정책 사례 및 경험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한국의 일자리사업과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 LG하우시스가 제안하는 ‘2019 인테리어 트렌드’는?

동물패턴·가을색·대칭 공간

디자인 트렌드 세미나
키워드 ‘Better_조금 더 나은’

LG하우시스가 내년도 인테리어 디자인 트렌드 키워드를 ‘Better_조금 더 나은’으로 제시했다.

LG하우시스는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호텔에서 ‘LG하우시스 2019/20 디자인 트렌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19회 짝인 LG하우시스의 ‘디자인트렌드세미나’는 국내외 사회 이슈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산업 흐름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인테리어와 디자인 트렌드를 전망하는 자리다.

이날 LG하우시스가 제안한 ‘B



세미나 참석자들이 LG하우시스가 제안한 내년 디자인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etter_조금 더 나은’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냉소보다는 삶에 대한 긍정적 의지를 바탕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환경 문제가 소비, 여가, 공간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면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일상 속 작은 습관부터 바뀌어 가는 ‘의식 있는 소비자’들이

트렌드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LG하우시스는 ‘Better_조금 더 나은’을 기반으로 한 3가지 디자인 테마 ▲동물을 모티브로 동화적 상상력을 담은 공간 ‘슬기로운 생활. 페이블(Fable)’ ▲몸, 마음, 정신이 모두 건강한 토탈웰빙 공간 ‘즐거움 생활. 트리트(Treat)’ ▲미래에 대한 낙관적 시선과 호기심을 담은 공간 ‘탐구 생활. 오브(Orb)’도 함께 제안했다.

LG하우시스는 이들 트렌드 테마에 따라 친근하고 익살스러운 동물 패턴, 브라운, 골드 등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가을 느낌의 색상, 대칭 구조를 활용한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공간 디자인 등이 내년에 주목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승호 기자